

6. 海底地形變化에 의한 波의 變形에 관한 研究

蔚山大學校 副教授(工博) 金聲得

海底地形变化에 의한 波浪의 数值解析 Numerical Analysis of Wave Propagation by Bottom Variation

蔚山大 工科大学 副教授 金聲得
울산대 대학원 이 성 대*

1. 序論

해양파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해저지형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에 파랑이 어떻게 변형하는가를 예측하고 그 기구(Mechanism)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해저 바닥이 불연속적인 유곡성으로서 변화하는 경우 파의 변형에 관한 이론적 해석 방법으로는 기하학적변화 영역을 등각사상하여 해석하거나 속도포텐셜의 고유함수 전개에 의해 각각의 세부영역에 대한 해를 연직경계에 접합하여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이같은 유체영역에 대한 경계치문제를 수치해석 방법으로서 경계상에 속도포텐셜에 대한 적분방정식을 얻기 위하여 Green 정리를 이용하고 특이점을 분포시키는 積分方程式法이나 變分原理에 의한 有限要素法에 의한 解析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법으로서 Green 제2정리에 따르는 기본해 (free space Green's function)를 문제대상의 전영역에 대해 그 경계를 오소화하여 수치적분을 행하는 경계요소법을 이용하여 파가 기하학적 불연속 해저 변화영역에 임의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에 파의 반사 및 전달 효과에 관해서 연구하였다. 이에 관한 연구는 #들과 Kirby 등에 의한 일점요소를 사용한 예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선형요소를 이용하여 해석한 본 연구자의 결과를 傾斜入射波의 경우로 확장하여 解析을 行하였으며, 이의 結果를 다른 解析法의 結果와 比較하여 검증하였다.

2. 境界치 문제

유체운동을 비점성 완전유체의 미소진폭파 운동이라 가정하고 좌표계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낸다.

그러면 속도포텐셜 $\phi(x, y, z, t)$ 는 다음과 같이 쓸수 있다.

$$\phi(x, y, z, t) = \Phi(x, z) e^{i(my - \sigma t)} \quad (1)$$

여기서, $m = k_A \sin \theta$ 이며, 직각 입사파의 경우 $m=0$,

선형투사파의 경우 $0 < m < k_A$

이다. Laplace 방정식에 (1)식을代入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 Helmholtz 방정식을 얻는다.

$$\nabla^2 \Phi - m^2 \Phi = 0 \quad (2)$$

(2)식은 다음의 경계조건을 만족한다.

$$\left[\begin{array}{l} \text{자유수면상에서, } \frac{\partial \Phi}{\partial z} = \frac{\sigma^2}{g} \Phi \end{array} \right. \quad (3)$$

$$\left[\begin{array}{l} \text{해저 바닥상에서, } \frac{\partial \Phi}{\partial n} = 0 \end{array} \right. \quad (4)$$

$$\left[\begin{array}{l} \text{radiation condition, } \frac{\partial \Phi}{\partial x} = \begin{cases} i l_A \Phi - 2 i l_A \Phi_I & : \text{상단층} \\ i l_C \Phi & : \text{하단층} \end{cases} \end{array} \right. \quad (5)$$

여기서, 입사파의 속도포텐셜은 다음과 같다.

$$\Phi_I = - \frac{i g \cosh k_A (h+z)_A}{\sigma \cosh k_A h_A} e^{i l_A x} \quad (6)$$

그리고 $l_i = \sqrt{k_i^2 - m^2}$ ($i=A, B, C$) 이다.

영역 A 와 C 에서 상기 경계치 문제를 만족하는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Phi_A = \Phi_I - \frac{i g R \cosh k_A (h_A+z)}{\sigma \cosh k_A h_A} e^{-i l_A x} \quad (7)$$

$$\Phi_C = \frac{-i g T \cosh k_C (h_C+z)}{\sigma \cosh k_C h_C} e^{i l_C x} \quad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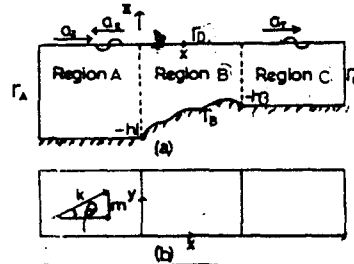


Fig. 1 Definition sketch and coordinate system.
(a) elevation (b) plan

여기서, σ 는 다음과 같은 分散關係로 부터 얻어지며

$$\sigma^2 = gk \tanh kh \quad (8)$$

R과 T는 각각 반사 및 전달 계수를 나타낸다.
 회절과에 대한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부터 다음의 조건을 얻는다.

$$R^2 + T^2 \left\{ \frac{\rho_c k_A^2 l_c}{\rho_A k_c^2 l_A} \right\} = 1 \quad (10)$$

여기서,
$$\rho_i = \frac{1}{2} \left(1 + \frac{2k_i \cdot h_i}{\sinh 2k_i \cdot h_i} \right) \quad i = A, B, C \quad (11)$$

3. 경계 요소 방정식과 수치 해석

(2)~(5)식에 나타낸 경계치 문제를 풀기 위하여 가중 잔차형을 도입하여, 속도포텐셜 ϕ 에 Green 제2정리를 그리고 (2)식에 가중 함수인 기본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phi^i + \int_{\Gamma} \left(\phi \frac{\partial \phi^*}{\partial n} - \phi^* \frac{\partial \phi}{\partial n} \right) d\Gamma = 0 \quad (12)$$

여기서, ϕ^i 는 Dirac delta 함수의 정의로 부터 얻어지는 요소 내부의 점 i 에서의 비파동속도 포텐셜이며 가중 함수 ϕ^* 는 2次元 等方인 경우의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ligned} \phi^* &= -\frac{1}{2\pi} \ln(r) ; m=0 \\ \phi^* &= \frac{1}{2\pi} K_0(mr) ; 0 < m < k_A \end{aligned} \right\} \quad (13)$$

여기서, r 은 요소 내부의 점 i 에서 경계면에 이르는 거리이며, K_0 는 2층차 변형 Bessel 함수이다.

만일 점 i 를 경계면 위에 두고 생각한다면 (2)~(5)식의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영역의 전경계를 n 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12)식을 다음과 같이 쓸수가 있다.

$$\begin{aligned} C^i \phi^i + \sum_{n1} \int_{\Gamma_f} \left(\phi_f \frac{\partial \phi^*}{\partial n} - i k_A \phi^* \right) d\Gamma + \sum_{n2} \int_{\Gamma_f} \phi_f \frac{\partial \phi^*}{\partial n} d\Gamma + \\ + \sum_{n3} \int_{\Gamma_f} \phi_f \left(\frac{\partial \phi^*}{\partial n} - i k_c \phi^* \right) d\Gamma + \sum_{n4} \int_{\Gamma_f} \phi_f \left(\frac{\partial \phi^*}{\partial n} - \frac{\sigma^2}{g} \phi^* \right) d\Gamma = \end{aligned}$$

$$= \sum_{n=1}^{\infty} \int_{\Gamma} (2i l_n \dot{\Phi}_n \Phi_n^*) d\Gamma \quad - (14)$$

여기서, C^i 는 경계가 매끈한 경우에는 $\frac{1}{2}$ 이나 일반적으로 전 i 가 위치하는 경계요소의 모양에 따른다. 그리고 n 은 경계 Γ 상의 요소에 해당한다.

(14)식을 풀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은 선형요소를 생각하면, 요소의 입점점에서 Φ 와 $\frac{\partial \Phi}{\partial n}$ 의 값은 선형보간 함수 φ_1 과 φ_2 는 절점값에 의해서 정의되는데, 이것을 (14)식의 각 항분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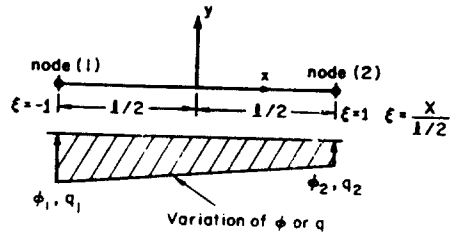


그림 2. 선형요소

$$\int_{\Gamma} \Phi_n \frac{\partial \Phi_n^*}{\partial n} d\Gamma = \int_{\Gamma} [\varphi_1 \varphi_2] \frac{\partial \Phi_n^*}{\partial n} d\Gamma \begin{Bmatrix} \Phi_1' \\ \Phi_2' \end{Bmatrix} = [h_{i1} \ h_{i2}] \begin{Bmatrix} \Phi_1' \\ \Phi_2' \end{Bmatrix} \quad - (15)$$

$$\int_{\Gamma} \Phi_n \Phi_n^* d\Gamma = \int_{\Gamma} [\varphi_1 \ \varphi_2] \Phi_n^* d\Gamma \begin{Bmatrix} \Phi_1' \\ \Phi_2' \end{Bmatrix} = [g_{i1} \ g_{i2}] \begin{Bmatrix} \Phi_1' \\ \Phi_2' \end{Bmatrix} \quad - (16)$$

여기서, Φ_1' 과 Φ_2' 는 절점 1과 2에서의 절점값이다. (그림 2)

그리고, $\varphi_1 = \frac{1}{2}(1-\xi)$, $\varphi_2 = \frac{1}{2}(1+\xi)$, $\xi = \frac{x}{l}$ 이다.

$i \neq j$ 인 경우, 상기 (15)식과 (16)식은 Gauss 적분 공식에 의해 수치적으로 계산된다. $i = j$ 인 경우 (15)식은 n 과 Γ 의 직교성에 의해 0가 되고 (16)식의 성분 g_{i1} 과 g_{i2} 는 해석적분을 행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직각입사파의 경우; $m=0$ >

$$\left. \begin{aligned} g_{i1} &= \frac{\Delta S}{2\pi} (0.5 \ln \frac{1}{\Delta S} + 0.75) \\ g_{i2} &= \frac{\Delta S}{2\pi} (0.5 \ln \frac{1}{\Delta S} + 0.25) \end{aligned} \right\} \quad - (17)$$

<傾斜入射波의 경우; $0 < m < k_0$ >

$$\left. \begin{aligned} g_{i1} &= \frac{1}{2\pi} (0.75 - \frac{\gamma}{2} - \frac{1}{2} \ln \frac{m}{2} \Delta S) \\ g_{i2} &= \frac{1}{2\pi} (0.25 - \frac{\gamma}{2} - \frac{1}{2} \ln \frac{m}{2} \Delta S) \end{aligned} \right\} \quad - (18)$$

여기서, ΔS 는 요소의 길이이며 γ 는 Euler 상수 ($\gamma = 0.5772156$) 이다.

(15)식과 (16)식의各項을 (14)식이代入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行列식을 얻는다.

$$\begin{bmatrix} H_{ij} - G_{ij} \begin{bmatrix} i l \lambda \\ 0 \\ i l c \\ 0 \end{bmatrix} \end{bmatrix} \begin{bmatrix} \Phi \\ \Phi \\ \Phi \\ \Phi \end{bmatrix} = \begin{bmatrix} G_{ij} \end{bmatrix} \begin{bmatrix} -2 i l \lambda \Phi_I \\ 0 \\ 0 \\ 0 \end{bmatrix} \quad (19)$$

(19)식으로부터 속도포텐셜 Φ 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수면형과 波高를 구하고 또한 反射 및 傳係數를 計算할수 있다.

4. 계산 결과 및 분석

4.1 단락부에 적용한 경우

해저수심이 矩形 단락에 의해 변화하는 경우에 직각입사파에 의한 波의 반사 효과를 그림 (3)과 (4)에 나타내었다. 이의 결과는 #함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경사 단락의 경우 수심이 $h_1 (x \leq 0)$ 에서 $h_2 (x \geq L)$ 까지 경사면 $S (= (h_2 - h_1)/L)$ 가 $\frac{1}{3}$, $\frac{2}{3}$ 로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고려하였다 ($h_2/h_1 = 0.2$). 이의 결과는 완경사 방정식과 Kirby의 중간 경사 방정식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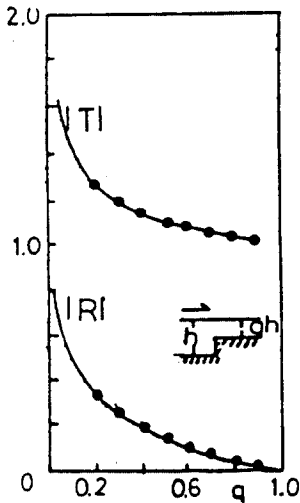


그림 3. 反射 및 전달 계수
 • ; present result
 — ; Ijima's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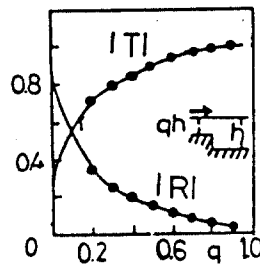


그림 4. 反射 및 전달 계수
 • ; present result
 — ; Ijima's res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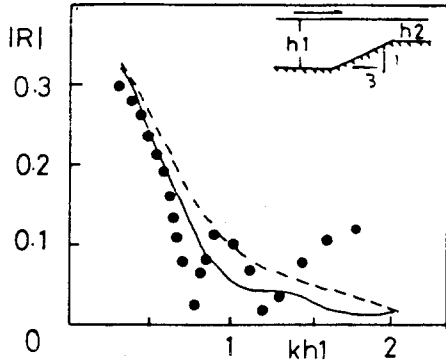


그림 5. 傾斜 단락 (경사 1/3) 이서의
反射係數 \bullet ; present result
- - -; mild slope eq.
—; moderate slope 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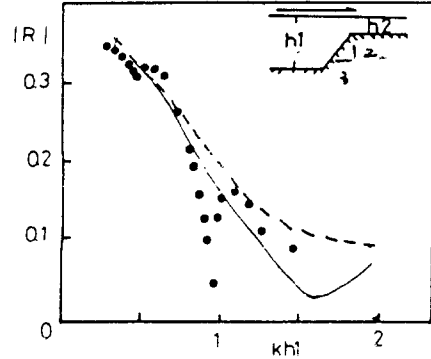


그림 6. 경사 단락 (경사 2/3) 이서의
반사계수 \bullet ; present result
- - -; mild slope eq.
—; moderate slope eq.

4.2 불투과 잠펄에 적용한 경우

구형잠재에 임의방향으로 입사하는 파의 反射 및 傳達 特性은 ($\theta=0^\circ, 30^\circ$) 井島 外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7)

사다리꼴잠재의 경우 수심에 대한 天端幅比 $b/h=0.5, 1.0$ 에 대해 전후면에 1:1, 1:2의 경사를 가진 경우(그림 8, 9)와 전후면에 1:1, 1:2의 경사를 가진 삼각형 潛펄에 (그림 10) 各各 적용하였다. 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측면경사 1:2의 사다리꼴잠재의 경우에 식 10을 적용한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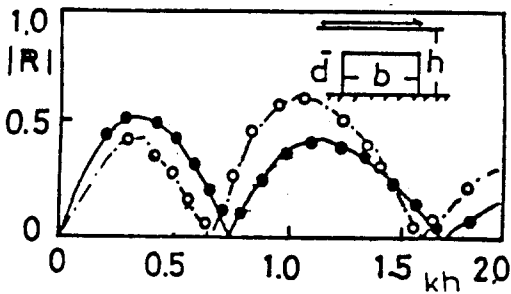


그림 7. 잠재에서의 반사계수.
 \circ ; present result - - -
; Ijima's result (1982). ($\theta=30^\circ$)
 \bullet ; present result. —; Ijima's
result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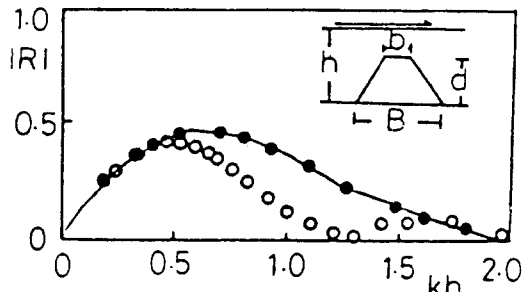


그림 8. 사다리꼴잠재에서의 반사계수
 \bullet, \circ ; present result
 \bullet ; 1:1 (side slope) \circ ; 1:2 (side
slope), —; Ijima et al (1982)

kl	T	R	T ² + R ²	Error(%)
0.92	0.9820	0.1876	0.9996	0.04
0.82	0.9681	0.250	0.9999	0.01
0.76	0.9523	0.3069	1.0001	0.01
0.68	0.9401	0.360	0.9995	0.05
0.60	0.9207	0.3902	1.0000	0.00
0.52	0.9101	0.4168	1.0007	0.07

표1. 사다리꼴 잠재에서의 전달 및 반사계수
(측벽경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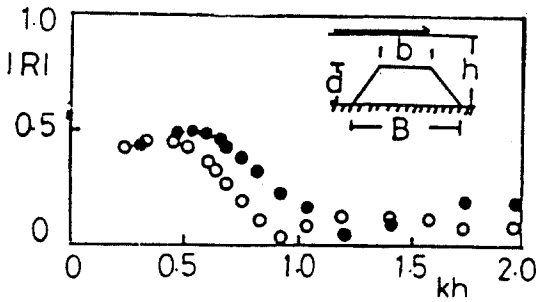


그림 9. 사다리꼴 잠재에 대한 반사계수
●; 측벽경사 1:1 ○; 측벽경사 1:2
($b/h=1.0$, $d/h=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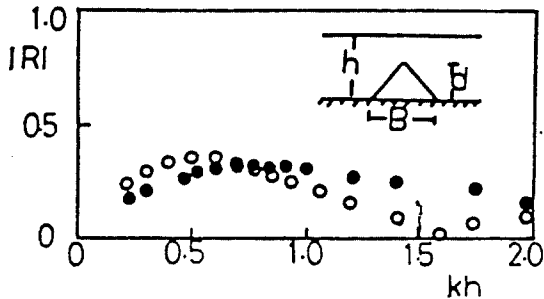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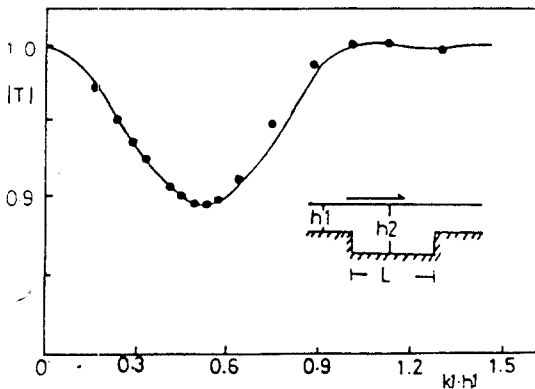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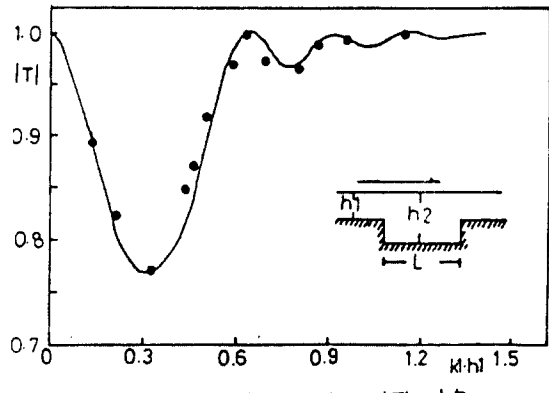
그림 10. 삼각형 잠재에 대한 반사계수
●; 측벽경사 1:1 ○; 측벽경사 1:2
($b/h=0$, $d/h=0.1$)

4.3 해溝에 적용한 경우

퍼칭 해溝 (trench)에 의한 파의 반사 및 전달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임의 방향으로 입사하는 경우 ($\theta=0^\circ, 45^\circ$)에 대해 Lee와 Ayer와 Kirby와 Dalrymple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11, 12)



(그림 11)-a, 퍼칭 해溝에서의 전달계수
 $h_2/h_1=7.625$ $L/h_1=5.28$



(그림 11)-b, 퍼칭 해溝에서의 전달계수
 $h_2/h_1=7.625$ $L/h_1=10.56$